

8월 “종파 사건”에 관한 재고찰: 북중소 삼각관계와 북한의 상대적 자율성 형성

양미화

8월 ‘종파 사건’은 북한 정치 체제와 북·중·소 삼각관계의 초기 구조에 변화를 일으킨 첫 사건이다. 협력적인 북·중·소 삼각관계의 구조적 특징의 변화는 북한 국내 정치에서 비롯되었다. 소련공산당 제20차 당 대회 이후, 김일성의 반대 세력들은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비판하고 집단지도체제를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반김일성 세력의 시도가 실패한 후, 소련과 중국은 조선로동당 내정에 개입했다. 지도자의 정권 공고화가 정책적 목표였던 김일성은 양국의 내정 개입 초기에는 소극적이지만 전략적으로 대응했고, 1956년 동유럽 위기 이후에는 당내 반대파들을 숙청하는 등 적극적 대응 전술을 펼쳤다.

중국공산당과 소련공산당이 조선로동당 내정 개입에 실패하면서 중소 분쟁 이전, 북·중·소 삼각관계의 특징적인 구조로 인해 북한이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대내적 차원의 상대적 자율성을 형성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이 형성되었다. 협력적인 중소 관계 하에서, 북한이 대내적 차원의 자율성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 일국 중심의 삼각관계에서 세 양자 관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저항 정책과 중국과 소련의 부주의로 인해 북한은 강대국의 내정 개입을 배제하고 수직적인 소-중-북 구도에서 세 양자 관계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 김일성의 저항이 가능했던 것은 동유럽 동란으로 인해 사회주의 진영에서 주권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중국과 소련이 김일성을 대체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외부적 연계를 맺고 있는 반대 세력들을 숙청하였고 이후 중국과 소련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 개입은 직접적인 내정 문제에 대한 관여가 아니라 설득과 회유, 보상과 처벌을 통한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야만 했다.

양미화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이다. 박사 학위 논문 제목은 <북중소 삼각관계와 북한, 1956- 1961: 북한의 상대적 자율성 형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일대일로 전략과 중한 협력", "North Korean Autonomy and the Sino-DPRK-Soviet Triangle: The Process of Withdrawing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2023 Annual Conference, 17th- 18th February 2023, 회의 논문) 등이 있다.